

석판 정부고시가격 공포 필요

이신영 / 중앙제관(주) 영업부 부장

지속적인 불황 속에서 올해 3월, 5월, 9월 세번에 걸쳐 석판인상으로 공관 사용업체에 원부자재 상승으로 원가부담을 증대시켜 거래상의 불편한 관계까지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제관(공관)의 종류는 크게 음료관, 식관(통조림), 미술관(18 l, 5G/A)의 3종류로 나뉜다.

음료, 통조림관 생산업체와 달리 미술관(18 l, 5G/A) 업체는 상호견제가 심하여 전쟁중이라 해도 파언이 아니다.

현실적으로 모든 악조건하에서 식품업체로서 힘드게 제조를 하는 상태에서 포장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 포장재 변경이란 자구책을 강구중이다. 예로 603Dia 3kg(케첩, 피클, 참치, 팔빙수)도 파우치 포장으로 일부에서 실험생산 중인 파우치는 폐기물 중량에서도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공관(Can)의 장점은 유통과정 적재, 장기보관이 장점 말고 없는 상태이다. 내용물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고 3~4년 전에는 환경 호르몬 문제가 제기된 지금 물량이 매년 축소될 것으로 사료된다.

일부 음료는 병이나 페트(PET) 용기로 변경 생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병, 페트(PET) 용기의 장점은 소비자가 직접 내용물을 육안으로 확인한 상태에서 소비할 수 있으며 발청(녹)의 걱정이 없다.

또한 예로 성매매 특별단속법으로 2차, 3차, 산

업(단란주점, 룸살롱)에서 소비되는 우롱차(200Dia 180ml) 시장이 거의 전멸된 상태이다.

따라서 공관은 사면초가에 직면하여 있고 대기업에 납품하는 가격은 대기업이란 측면과 물량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제조원가 수준으로 거래를 하고 있어 이익을 내지 못하고 업체에 끌려 다니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다보니 원부자재 상승요인에도 불구하고 공관가격을 인상하는데 일부업체에서 눈치만 보고 있다.

미술관(18 l, 5G/A)업체는 올해 한번밖에 단가 인상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제관사가 난립되고 있는것도 문제지만 상거래의 도덕적 해이라고 밖에 할수 없다. 2005년도에도 업계 발전은 불투명하다. 이달부터 제기되는 석판인상 문제를 볼 때 정부에서 획기적으로 석판을 정부 고시 가격으로 공포하거나 일본에서 주력으로 공관외면에 인쇄(프린팅)하는 것을 없애고 백관으로 직접 라벨 및 스티커 작업(미주 및 유럽처럼)을 포장재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며 환경측면에도 효과적일 것이다.

인쇄된 공관도 땅속에 들어가도 몇십년 지나야 분해되지만 백관은 3~5년 정도 지나면 분해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올해 같은 어려움도 지내왔던 것처럼 2005년도 현장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제관업계의 일꾼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이다. ☐